

이정주(2011).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인권교육의 변화".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선영(2005). "초등사회과에서 평화교육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적용: 미래관련 교수법을 중심으로". 『초등사회과교육』, 17(2), 67-91.

최관경(2009). "21세기의 평화와 평화교육". 『교육사상연구』, 23(1), 1-25.

Galtung, J.(1996). *Peace by Peaceful means*. 강종일 외 역(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Hicks, D.(1987). *Education for Peace*. 고병현 역(1993).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서원.

Wolterstorff, N. P. (1980). *Art in Action: Toward a Christian Aesthetic*. 신국원 역(2010). 『행동하는 예술』.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Wolterstorff, N. P. (1983). *Until Justice & Peace Embrace*. 홍병룡 역(2007). 『정의와 평화의 입맞춤 때까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Wolterstorff, N. P. (1984). *Reason within the bounds of Religion*. 문석호 역(1991). 『종교의 한계 내에서의 이성』. 서울: 성광문화사.

Wolterstorff, N. P. (1987). "Teaching for Justice: On Shaping How Students Are Disposed to Act". Joldersma, C. W. & Stronks, G. G. (Ed.) (2004). *Educating for Shalom: Essays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Wolterstorff, N. P. (1999). "Teaching for Gratitude". Stronks, G. G. & Joldersma, C. W. (Ed.) (2002). *Educating for Life: Reflections on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의 진리론 - 교육선교의 기초

배도환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기독교역사전공 박사과정 수료)

초록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는 1891년 한국에 건너 온 미국 북장로교(PCUSA) 소속 선교사이다. 그는 선교부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였으며, 최초의 근대 대학인 숭실학교를 세운 설립자이기도 하다. 당시 많은 기독교학교가 있었지만, 베어드가 입안한 교육정책과 그가 세운 숭실학교는 다른 기독교 학교와 구별되는 새로운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베어드가 새로운 교육 사업을 시도한 교육선교사상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특히 베어드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장에서는 '베어드의 진리론'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 그것은 첫째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둘째 부활과 재림신앙이 소망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며, 셋째 성결한 삶으로 변화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3장에서는 이 진리론이 지니고 있는 비타협성, 초월성, 개혁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것이 교육선교와 어떻게 이어지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 윌리엄 베어드, 진리론, 교육선교사상, 기독교학교, 숭실

### I. 서론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는 1891년 한국에 건너 온 미국 북장로교(PCUSA) 소속 선교사이다. 그는 1931년 평양에서 소천할 때까지 한국 교회개혁과 문서사역과 근대학교설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선교부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였으며, 최초의 근대 대학인 숭실학교를 세운 설립자이기도 하다. 당시 선교사들이 세운 많은 기독교학교가 있었지만, 베어드가 입안한 교육정책과 그가 세운 숭실학교는 다른 기독교 학교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인 학생을 받아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자 한 것이고, 학교를 평양에 세웠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교를 위해서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받아야 하고, 정치와 권력의 중심지인 서울에 학교를 세워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서양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비기독교인의 환심을 사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베어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더욱이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대학문제(The College Question)' 사건에서도 베어드는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sup>318)</sup> 왜 베어드는 교육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려 했을까? 또 하나, 베어드의 숭실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 사회개혁이나 민족운동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나 숭실학교 졸업생 중 많은 이들이 개혁과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베어드는 어떤 교육의 그림을 그리고 어떤 교육의 사상을 가지고 어떤 교육의 제도를 한국 땅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일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어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많은 진전을 보여주었

318) '대학문제'는 교육의 기본 철학과 방법, 학교의 성격과 위치 등의 문제가 되어 선교사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을 불러일으킨 논쟁이었다. 베어드와 언더우드 선교사 등 많은 선교사들이 이 일로 고통을 겪었고, 숭실대학의 역사와 연세대의 설립과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배도환 (2010). "대학문제를 통해 나타난 배위량의 교육선교사상 및 역사적 의의." 『신앙과 학문』, 15(2), 75-94.. 탁지일 (2013). "윌리엄베어드와 대학문제."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베어드의 선교와 사상』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다.<sup>319)</sup> 아쉬운 점은 대부분 그의 삶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의 사상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도 2차 사료에 의존하거나 그의 저작물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베어드의 사상, 특히 교육선교사상에 초점을 맞추되, 1차 사료 즉 베어드의 저작물을 근거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 글은 앞서 제기한 물음에 해답을 찾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베어드의 사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인가? 베어드가 세운 학교로 그의 사상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숭실학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학교의 교명 ‘숭실’이라는 단어는 베어드의 사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숭실(崇實)’은 ‘Venerate Truth’ 즉 ‘진리를 숭상한다.’는 뜻이다.(Baird, 1968: 135)<sup>320)</sup> 베어드가 학교를 세워 숭상하고자 했던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서 베어드의 사상을 풀어내고자 한다.

베어드가 ‘진리론’이라는 것을 명명하고 이론을 펼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숭실 교명 뿐 만 아니라 많은 글에서 베어드는 ‘진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진리라는 표현이 그의 사상을 담아내기에 가장 적합하기에 이 글에서 ‘베어드의 진리론’이라고 명명하였다. 베어드의 진리론을 이해할 때 그의 삶과 신학과 사상, 그리고 교육선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II. 윌리엄 베어드의 진리론 이해

베어드는 1892년 5월 일기에 “나는 그들이 진리의 교훈을 배우게 되기를 바란다(Baird, 1892-1895: 22).”<sup>321)</sup>고 쓰고 있다. 이 때는 경상도 지역으로 떠난 1차 전도여행을 하던 때였다. 그는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전도 책자를 번역하고 지니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다. 그가 1893년 그가 번역한 첫 번째 책은 『턴로지귀(天路指歸)』라는 책이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 세상사람 중에 죄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른 구원할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사탄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그 속죄하는 뜻은 다름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을 공변된 하나님이 그저 사후할 수 없으므로 권세 있는 구원할 이를 보내셨으니 이는 곧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사 죄를 속하셨으니 그 구원할 이가 없었더면 이 세상 사람이 다 멸망하였시리라 ...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에 야모 죄 업스시고 명령을 온전히 행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임의 중한 고성을 만히 맞아 십자가에 죽으셨스니 사람의 맛을 형벌을 예수께서 맞으신고로 시방은 야모 사람이라도 예수만 믿고 죄를 회기하면 그 공덕을 넘어 하나님의 죄 사함을 얻으리라(Judson, 1908:4-5)<sup>322)</sup>

319) 먼저 정기간행물로는, 류대영 (2010). “윌리엄 베어드의 교육사업.”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127-157. 김영한 (2011). “윌리엄 베어드의 네비우스방법에 의한 교육선교.” 『기독교철학』. 12. 151-178. 변창욱 (2011).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방법과 교육선교정책.”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4. 317-340. 등이 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연구연구소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글을 모아 두 권의 책을 편찬했는데, 2009년에 발간한 『베어드와 한국선교』에는 다음의 글이 있다. 박정신 “역사의 베어드, 베어드의 역사.”, 박용규 “윌리엄 베어드와 한국 선교.”, 김명배 “윌리엄 베어드와 숭실대학.”, 이상규 “윌리엄 베어드와 문서선교.”, 그리고 2013년에 발간한 『베어드의 선교와 사상』에는 다음의 글이 있다. 김명배 “베어드 신학사상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 김영한 “윌리엄 베어드의 신학사상.”, 임희국 “윌리엄 베어드의 에큐메니컬 운동.”, 탁지일 “윌리엄 베어드와 대학문제.”, 탁희성 “윌리엄 베어드 선교 문서의 문체와 표기.”

320) “In Korean they are pronounced, Soong Sil, and mean, Venerate Truth.”

321) “I hope they may learn some lessons of truth.”

『그리스도교의 신앙』 서문에서 베어드는 조선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많은 책을 저술하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사 조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알게 되는데 도움 되는 책을 만히 저술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노이다(金森通倫, 1922: 역자서문 4).”<sup>323)</sup>

즉 ‘베어드의 진리론’은 베어드가 믿고 숭상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기독교의 진리를 말한다. 그러면 베어드가 전하고자 했던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구원 진리, 소망 진리, 변화 진리이다.

### 1. 구원 진리

구원진리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하나는 대속의 은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먼저 대속의 은혜 즉, 인간의 죄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에 대해 알아보자.

베어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구절 중 첫 번째가 “죄의 갑슨 사망(배위량, 1926a: 43)”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됨과 유태인 가온대 잇는고로 복음은 모든 사람의게 요긴함(배위량, 1926a: 45)”이라는 설명을 통해 사람의 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베어드는 죄의 결과로 죽음이러는 저주와 심판이 인간에게 찾아 온 것임을 강조한다. 죄로 인한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죽음의 문제에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평민의 복음』에서 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기 말씀한 죄악이란 뜻은 나라의 법에 걸려서 경찰서이나 감옥에 잡혀 갈만한 죄 뿐 아니라 무릇 조그 랑 심의 지위를 거스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압호게 흘만한 언어와 행동과 수상을 총칭하여 죄악이라 혼것 이외다(山實軍平, 1925: 23)

겉으로 죄짓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까지의 정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

322) 『턴로지귀』는 이후 재번역 발행을 계속하였고, 이 글에서 참고한 책은 1908년 판이다.

323) 베어드가 이 책을 번역한 이유는 저자의 가나모리(金森通倫) 목사의 회심과정 때문이다. 베어드는 회심의 상세한 내용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는 어릴 때 학교 교사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아직 기독교에 대한 자유가 허용되지 않던 터라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가나모리와 친구들은 일본의 복음화를 꿈꾸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었다. 그러나 동지사(同知社)대학 교수가 되면서 독일과 미국으로부터 온 자유주의 신학의 책들을 접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버리게 된다. 그리고 도덕과 사회개량을 설파하는 연사가 되어 20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후 아내가 죽게 되는 슬픈 사건을 당하는데, 아이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할 말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이제 다시 그는 전국을 다니며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金森通倫(Kanamori, Paul M. ), 『信仰のすゝめ』(The Christian Belief), 배위량 역 (1922), 『그리스도교의 신앙』,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역자 서문1-3쪽.

하셨다. 이것이 대속(代贖)은혜이며 그리스도의 공로이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교가 사름은 다 죄인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를 더속히 심을 7르치신 니 그리스도는 의로오시나 죄인의 처지에 처하여 죽으심은 죄인의 영혼을 위하여 더욱의 멸망중에서 구원하려 하시니라(배위량, 1926c: 138)

예수께서 죄를 흘리신 것은 사름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사람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께서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고, 그 공로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죽음이야말로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며 타종교와 비교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불교와 유교와 모하멧교에서 여간한 도흔리치를 7르치기는 하나 세상에 언더한 종교에서던지 그 종교 창설자가 죽음으로 사름의 영혼을 구원하였다고 7르치신 거슨 업느니라(배위량, 1926c: 136).”

십자가의 죽음은 본래 부끄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흉악한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또 가족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가정의 치욕으로 여기어 그 사실을 숨기곤 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는 도를 전할 때 예수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전파한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사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오히려 즐거움이고, 영광이다. 예수의 죽음은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영광이고, 십자가는 영광의 표적이다.(배위량, 1926c: 137-138)

이와 같은 진리, 즉 사름의 죄와 죽음과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구원에 관한 교훈이 가장 크고 중심이라고 베어드는 강조한다. “이 교훈은 우연히거나 규모가 적은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 종교의 중심되는 교훈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업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배위량, 1926c: 139).”

둘째 구원은 오직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베어드는 행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오직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였도다 구원을 얻는 거슨 그리스도의 은혜 뿐이오 죄인이 죄와 더욱 형벌에서 면할 다른 방도가 업느니라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기로 언약한 유일한 종교라(배위량, 1926c: 143)

베어드가 존 번연의 글을 번역할 때에도 그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을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다. “죽기는 조고마흔 공로도업스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가 되엿다(훈이라.(Bunyan, 역자서문 2))” 이 독신보에서 연재한 단편기담에서도 베어드는 믿음을 강조한다. “죄인 뿐이라 죽게되어 말할수업는 가온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밧고 영성을 얻는 거술 생각하니 누구던지 춤으로 밧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니라(배위량, 1917c: 5).”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고백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은 죄의 형벌을 면할 유일한 방법이며, 이 또한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 베어드는 설명한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밧음」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글에서 그는 믿음의 중요성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밧음의 목덕이 무한이 큰거슨 예수 그리스도와 그 흐신바일이 곳 사름의 구주가 됨이오 그 밧음의 결과가 무한이 귀중한 사름의 영혼의 구원이 됨이라(배위량, 1924: 41).” 이어서 10가지 주제로 나누어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글 마지막 부분에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설명하고 있다.

그더가 죄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며 그더의 행위와 감동과 심지어 그더의 밧음까지라도 내어 놉코 예수만 바라보며 그더의 밧음과 이쑤과 하어보는거술 그만두며 감출거시 업시 빗진자가 보증인만 의지함

자흔 밧음은 다만 예수를 의지하는 것 뿐인줄을 알며 그리스도를 그더의 구주로 삼아 의지하는 날에야 하느님피서 그더의 영혼을 구원할실거시오 이 단순한 밧음이 그더로 하여곰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할지니라(배위량, 1924: 54)

즉 믿음이란 의지하는 것이다.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무기력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내용, 즉 인간의 죄와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구원진리이다.

## 2. 소망 진리

소망 진리란 부활과 재림신앙이 소망을 가져다준다는 내용이다. 베어드가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첫째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베어드는 인간의 죄인 됨과 십자가의 대속과 더불어 중요한 중심교훈은 부활이라고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교 교훈의 7장 큰 중심되는 사실중에 하나이라 전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니(배위량, 1926c: 140).”

인간의 죄악에 대한 처절한 심각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연이어 이야기 한다.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사랑을 설명하고, 부활을 통하여 소망을 전파한다. 그래서 베어드가 바라본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그 데자들은 두려워하여 다시고기잡이를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더희가 세로산 소망과 성신의 권능을 얻어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각처에 전파하니라(배위량, 1926c: 140)

죽음은 두려움을 일으킨다. 예수의 제자들도 부활을 확실하지 못했을 때는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는 소망의 소식이다.

베어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주일이라고 설명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지켰으나, 부활 이후 일주일의 첫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일주일의 첫 번째 요일인 것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배위량, 1926c: 141)

또 베어드는 부활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되는 점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종교에는 사후의 행복을 확실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소망의 종교이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소망의 순간으로 만든다. “신자가 림중시에 온전하 소망을 가지느니 이는 더가 예수 그리스도와 흠피 누릴 영원한 영광중으로 드러감이라(배위량, 1926c: 146).” 기독교에서 죽음은 저주만의 언어가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죽음을 극복하고, 소망과 즐거움을 바라본다. 생명과 희망을 노래한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어드는 개인의 임종 시에 절망과 슬픔 보다 오히려 소망을 가진다고 말한다.(배도환, 2009: 62-63)

기독교의 진리가 소망의 진리인 것은 둘째 재림이 있기 때문이다. 부활은 재림 신앙으로 연결된다.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종말과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다. 베어드는 철저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베어드가 제임스 브룩스(James H. Brooks)의 『쥬제림론』을 번역하였다는 사실에서 그의 재림신앙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이 책을 봄으로 성경 리치를 알게 되었으며 더욱 사랑함으로 번역하노니

(Brooks, 역사서문5).”라고 그의 재림 신앙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박용규에 의하면, 당시 교회와 선교사들이 그들의 종말론을 ‘세대주의 전천년설 종말론’이라고 명명하고 수용한 것은 아닌 듯하다. 적어도 해방 이전까지는 이 둘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고 본다(박용규, 2000: 203). 즉 그들이 관심가진 종말론은 교리로서 종말론이 아니라, 신앙과 삶으로서 종말론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 그 자체가 베어드의 관심이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재림신앙은 현실을 더 적극적으로 살도록 한다. 『쥬제 립론』에서 이러한 재림신앙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재림신앙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말씀의 교훈과 계명을 견고하고 힘 있게 하고, 믿음의 신념을 더욱 확실하게 하며,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랑과 소망을 품게 하고, 열심을 다해 헌신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한다.(Brooks, 157)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26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26가지 제목만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 형제끼리 사랑할 것, 위로함, 죄에 디히야 죽을 것, 견딜 것, 신실할 것, 경건할 것, 하늘에 마음을 들 것, 순식간에 됨, 심판, 옷을 직할 것,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을 것, 양선할 것, 갖가움, 복종할 것, 춤을 것, 속히 오심, 감호실 것, 거룩케 할 것, 런던할 것, 칩망할 것이 업을 것, 썬어 있을 것, 기드릴 것, 지극한 착한 것을 분별할 것, 스모할 것, 열심을 품을 것 (Brooks, 157-165).”이다. 재림신앙은 신앙생활에 큰 힘을 주고, 선교 사업을 위해 즐거이 헌금을 하게 하고, 또 선교사들이 강한 활동력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사역을 하게하고, 절망과 낙심을 이길 수 있게 하며, 더 열심히 전도하게 한다.(Brooks, 166-168)

그리고 재림신앙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원동력이다.

습하고 병중에 있는 좀 신자의 마음을 위로도 하며 우리로 하여금 경성케 하고 우리가 더를 영접하기에 예비가 되었는지 힘써 스스로 슬허케도 하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디히야 죽게하고 빚에 족식 됴지 지 힘케하며 완악하고 경신업는 죄인을 날찌우게 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 갖지 신자를 분발시켜 슈고로써 복음을 원방에 전파케 하느니라(Brooks, 172-173)

재림은 이처럼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준다. 부활은 소망과 위로이며, 재림신앙은 “이 교회의 큰 소망이요 우리 사는 데 메일되는 목덕(Brooks, 180).”이다. 베어드가 전하고자 했던 두 번째 기독교의 진리는 이러한 소망의 진리이다.

### 3. 변화 진리

변화 진리란 신자가 성결한 삶으로 변화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베어드가 가르쳤던 기독교 진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진리다.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리스도는 ‘성결과 거룩’을 명령하는 주님이시다. 기독교는 어디에서든지 성결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만일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참된 신자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 죽기를 쫓는자드려 거룩한자가 되라 하셨스즉 그리스도교는 성결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 명하는 유일의 종교니 믿음 안에서든지 믿음밖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물론하고 정결하라 하셨스므로 거룩한 종교라 칭하며 또한 마음과 심혈전체가 성결하기를 명하느니 만일 성결치 아니한 심혈을 호는자면 참신자는 아니니라(배위량, 1926c: 135)

이처럼 베어드가 품고 있는 기독교는 죄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한다. 죄란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죄는 마귀의 수감과 같아서 조금씩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 “마귀도 사람을 잡느니 처음시작 할 때는 갑자기 잡지아니하고 죄지를 거슬 즈미롭게 무르치고 의심을 점점업게 후후에 싱가지 아니할 때에 홀수 업는 갖친자로 문돌고 멸망시키느니라(배위량, 1916: 5).” 베어드는 기독교 진리를 믿는 자는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권면한다.

둘째 변화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베어드의 구원진리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값을 지불하신다. 그것이 대속의 은혜이고, 속죄의 공로이다. 그러나 이 속죄의 공로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공로는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악에서 떠나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한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위험함을 슬허샤 사람 스랑하시기를 간절히하샤 곳 몸을 버려 사람을 권하여 죄를 썬나게 하섯스니 사람이 그 깊은 스랑을 보고 크게 감격하는 후에 그 악을 멀리 썬나지라 ... 속죄의 공로가 세상 사람을 권케하야 그 죄를 멀리 썬나게 하섯스니 우쥬에도 이리하고 지인의게도 이리하되라 대개 권하여 성결하기를 힘쓰고 만일 죄가 잇스면 회개하기를 바라느니라(Anonymous, 1917: 42-43, 46)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죄에서 떠나 마음과 행동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이 새로 태어난 자의 삶인 것이다. 새로 난 자, 다시 사는 자는 악한 성품을 죽이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을 지녀야 한다.

다시 사는거슨 무어신고 하니 처음 난 악한 성품을 죽이고 성신이 감화하여 주신 새 성품을 얻는거시오 새로 내지 아니 한 사람은 제 몸 만 지극히 스랑하고 제 스스로온 일만 싱각하는거시오 호식과 지물과 성명과 벼슬과 세상 권세만 갖버하는거시오 그런 거슨 새로 난 사람이 익답게 녹이고 천하게 아는거시오 또한 하늘을 지극히 스랑하고 하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이 원하고 눈 스랑하기를 제 몸 갖치 하며 ... 새로 난 사람은 죄악을 만히 범흔줄을 썬듯고 유공한 일노 그 죄를 속할 수 업는 줄 알고 예수의 구속하신 공노로 하늘이 사하여 주실줄을 아느니라 그런고로 예수를 지극히 스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도흔 일 만 힘쓰고 악한 일을 하지 아니 하느니라(Judson, 8-9)

셋째 변화진리는 개인의 성품에 머무르지 않는다. 변화된 삶의 요구는 자기의 사욕을 이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

죽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멸망하게 되오니 구원하여 주소서 후후에 확실히 돌지 기도는 다른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오니 더를 구원하여 주소서 할거시오 스욕을 이기는 구원이요 구원을 얻으면 죽거만 싱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싱각홀지니라(배위량, 1917d: 4)

죄에 대한 베어드의 설명에서도 마찬가지다. 죄란 개인에 관련된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공동체와 사회를 향한 죄까지 포함한다. 『문배와 성경답안』은 신앙교육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성경구절과 교훈을 문제와 답안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베어드가 생각하는 신앙교육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글이다. 총 90문항 중에서 변화된

삶에 관한 물음이 39개가 된다. 물음 또한 구체적이다. 이를테면 “구제를 었더케 베겔겔노(8번째), 거 것저울에 더하야 말숨헌 것이 무엇이노(22번째), 누구를 공경하라 헝섯노(32번째), 사름의 죄과를 용 사흐 필요가 잇노(40번째), 웨 혀를 직힐 것이노(52번째), 고리더금 헝섯자의 리익이 장춧엇더케 되 겔노(55번째), 늬의게 줌으로 무엇을 밧노(59번째), 불의헝 자가 웨 저회 길을 버릴 것이노(63번째), 무엇이 선을 갖가게 헝섯노(90번째)(배위량, 1926b: 47-53).” 등이다. 상당수의 물음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바산의 암소들이(암 4:1)!”라고 외치면서 헝겔고 가난 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한 자들에게 경고하였던 성경의 외침과 통한다. 신앙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야 할 중요한 성경공부에 삶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마다 사름의게 정직히 헝여야 되니 빛을 갑하야하며 저울과 두랑을 공평히헝여 야 되니 날녇스디 거 것저울은 주의 위위헝시니바요 공평헌 휴는 주의 깃버헝시는 바라(Elliott, 5).” 나아가서 베어드는 모든 신자들이 지, 정, 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고 말한다. 즉 교회에 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가정과 마음과 사업생활 등 모든 면에서 주인이라는 것이다.(배위량, 1926b: 136)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모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베어드는 변화된 성도의 삶, 성결한 신앙인의 삶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성결 의 삶의 내용이 개인적인 성품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와 사회를 향한 것 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베어드의 세 번째 진리, 변화진리이다.

### III. 윌리엄 베어드의 진리론의 성격과 교육선교의 이음새

#### 1. 진리론의 성격 - 비타협성, 초월성, 개혁성

베어드의 진리론은 세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비타협성, 초월성, 개혁성이다. 첫째 구원진 리는 비타협의 성격을 갖고 있다. 비타협성이란 연합이나 소통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칙을 굳게 지키는 뜻이다.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타협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기독교는 결코 변하지 않는 종교이며 변하면 안되는 종교라고 가르친다.

이 는 하나님의 종교인데 결코 사람이 변하지 못하겠거시오 만일 변하면 이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니라 만 일 그리스도교가 세상 다른 종교와 화친하는 교회가 되었더면 오래전부터 점점 변하여 벌써 었섯겔거 신더 결코 화친하지 아니헝스니 사름이 이 종교를 취하거나 버릴수는 잇슬어니와 그거슬 변헝거시아니니 라(배위량, 1926c: 148)

그리스도교에서는 흑백관식을 혼잡지 못할거시니 반하늬님과 반마귀되는 자가 결코 었고 사름이 중성 헝엇거나 그렇치아니헝면 중성지 못헝엇겔거시니라 다른종교는 재대로 피츄 화친됨이 잇서 혹자는 불교 도 헝고 유교도 헝고 혹 신도도 홉 수 잇스나 그러나 누구던지 그리스도신자가 되던지 그렇지 아니면 그 리스도 신자가 아닐 거시니 결코 반신자는 될수업느니라(배위량, 1926c: 149)

비타협 성격은 우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혁명과 같은 결단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예 가 우상숭배의 경우이다. 베어드와 당시 선교사의 눈에는 조상숭배는 분명 우상숭배였고 죄였다. 1894 년 2월 28일 베어드의 일기에는 조상숭배의 죄를 끊고 세례를 받게 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는 조상제사라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다만 제사상에 음식을 둘 뿐이

지 절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 그가 우상숭배를 완전히 끊을 만큼 강해지기를 바란다(Baird, 1892-1895: 75)

조상숭배는 조상에 대한 예의를 넘어서서 기복을 위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유교사회에서 조 상숭배는 종교요 사상이며 전통이며 삶의 한 부분이였다. 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사회생 활 뿐 만 아니라 친족, 가족 간의 단절을 각오해야 했다. 베어드를 비롯한 구한말의 선교사들은 술, 담 배, 축첩 등과 같은 것을 죄악시하고, 남녀 차별, 계급 제도 등과 같은 유교의 불평등 구조, 제사로 대 표되는 유교의 조상숭배를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기독교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유교의 가르침 과 관행을 버릴 것을 요구하였다.(박정신, 1993: 108, Park, 2003: 56-57)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동안의 삶의 모습과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의 결단과도 같은 것이었다.

둘째 소망 진리는 초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초월성이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을 초 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초월성은 제립신앙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종말론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기도 한다. 자칫 종말에만 관심을 가지다보면 “현실도파적인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김영재, 1989: 216)

그러나 선교초기, 당시 한국의 상황 속에서 제립신앙은 다른 성격으로 나타났다. 우선 제립신앙은 당 시 암울한 시대 상황가운데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희망’의 역할을 감당했다. 박용규는 전 천년설 종말론이 한국교회에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친 시기와 한일강제병합시기가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하면서, “1910년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자 우리의 주권을 강탈당하는 한일합방이라는 비극적인 사 건으로 민족의 독립의 소망이 종교적인 소망으로 대치되고(박용규, 200: 194).”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박 정신에 의하면 암울한 식민지 상황에는 종말론적 내세주의 신학은 오히려 하나의 “희망의 신학”으로 가능하였다.(박정신, 1993: 106)

『쥬제립론』에는 민족의 소망의 언어가 담겨있다.

거룩한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실 것은 의심업넬일이니 이는 신구약에 다 기록헝엇넬던 의가 온세상을 덤기를 몰이 바다를 더는 것 又호리라 헝시고 또 시二편에 예수되서 왕되실 것을 하느늬께서 밍세헝섯슨 즉 밍는자는 환난중에라도 평안헌 맛음으로 그 나라가 올 것을 기도될것이오 나중에 의가 세상을 이긋 것은 분명헌 것이라도 그 의로운 시더가 니르게홀 방침을 의문헝는 것이 잇스니 성경에 ㄱ르치심을 우리 신자가 밍을것이라 ... 예수를 죽인 세상은 아적스지 회기치 아니홀야 마귀의 슈하에 잇서 하느늬를 공경 치 아니헝고 구주를 밍지아니헝고 외식만 막는도다 ... 예수되서 첫 번 강림헝샤 십자가에 못박힘으로 사 립의 령혼을 구원헝실 ㄱ치 지립헝실 때에 마귀의 손 아래 잇는 세상을 건져내사 새롭게 헝실터이니 예 수외에 이 두 가지 일을 능히 홉 자가 업느니라(Brooks, 4)

이것을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 표현을 읽어 보자. 마귀의 손아래에 있는 세상은 당시의 기독교와 일 제정부를 연상하게 된다. 그러한 세상을 건져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가 왕으로 오시는 제립의 날은 민족의 소망의 날인 것이다.

궁극적인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부활과 제립신앙은 사람들로 하여 금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였다. 궁극적인 소망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와 예수의 제립에 두기 때문 에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제립을 갈망하는 신앙의 소 망과 희망은 현실세계를 초월하고 극복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쥬제립론』에서는 “그런고로 그 리치를 알고 예수를 의지헝는자들이 세상과 짝하야 동모로 삼지아니 헝느니라(Brooks, 5).”고 말하고 있다. 세 상과 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힘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어드가 선교초기

에서 들고 다녔던 진도책자 『턴로지귀』에서도 “가난한자와 빈궁한 자를 불상이 넘어 구제할 마음을 두며 세상에 헛된 지물을 바라지 말고 부자 되기를 원치 말고 영원이 문혀지지 않는 텃밭의 지물을 밭우 근절이 기도되고 원하여라(Judson, 12).”고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베어드는 초월의 신앙을 갖고 초월의 삶을 살았다. 초월의 신앙은 자신과 사회를 개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셋째 변화 진리는 개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개혁성이란 자기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삶을 살도록 했다는 뜻이다. 먼저 베어드의 변화진리는 죄와 악에 대하여서도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비록 그리스도교는 모든 사를 드러 와서 밋으라 청하엿스나 악을 거절하엿스나 모든 사들의게 회회 하고 그리스도를 밋으라 하니 죄인이나 창기나 도적일지라도 다 오라 청하엿스나 그러나 맛당히 더회 죄를 회회하고 중성하기를 요구하엿스나 더회가 죄를 써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나는 자가 되어야 홀 지니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드러갈 소망이 결코 업느니라(배위량, 1926c: 147-148)

또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얻는 것을 요구한다. 대충 죄를 회개하고 반쯤 악한 일을 하도록 복음은 허락지 않는다. 완전한 회개 즉,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을 요구한다. 그러한 복음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배위량, 1926c: 148)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에서 자기개혁은 시작된다. 철저하게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결단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자기 개혁과 도덕의 삶을 살게 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까지 포함하고 있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사회로 복음화(福音化)하라 산상보훈(마태五〇一~十二참고)은 심활상 각 방면에 응용하여야 할것이아 그 교훈은 교회생활만 위하야 주신것이 아니요 사회생활 쯤지 위하야 주신것이아 예수의 서로 도어주고 사랑하라는 사회교훈이 아니면 근본과 로동문제를 해결할 수 업슬것이아(Elliott, 37-38)

이러한 가르침과 행동은 사회개혁과 도덕적 갱생을 도모하는 진보적 신학의 사회 복음주의자들의 활동을 연상케 한다. 그들은 교회 울타리 벗어나 사회 공동체에서도 개혁의 삶을 살고 본을 보이며, 사회 개혁을 주도해나갔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교 조선을 개혁하려는 여러 사회, 정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박정신, 1993: 111)

## 2. 베어드의 진리론과 교육선교의 이음새

진리론의 비타협, 초월, 개혁의 특성은 베어드의 교육선교 사업에도 영향을 끼쳤다. 진리론의 이러한 특성은 기독교 진리 전파의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 베어드에 의하면 기독교의 진리만이 조선에 구원과 개혁이라는 큰 유익을 줄 수 있고, 그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 온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보물 다 합하여도 한 사람의 영혼만 못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 사람의 영혼이 온세상에 보물보다 귀하다함이라 ... 우리 밋는 자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더러운 죄 가운데 빠진 빠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시 찾고 구원을 얻게 할슈잇스면 한량업시 도혼일이 아니리오(배위량, 1917a: 4)

벗그러워하지말고 게으르지말고 위티한 거슬 두려워하지말고 말노 전도도 하고 손을쳐서 약호사람의

손을 잡고 또한 비가잠기느것 갖지 락심호는 영혼을 구원하고 위티하나 고로 오나 할수잇는디로 영원히 살수잇는 형태를 구원호는거시 엇지도혼일이 아니리오(배위량, 1917b: 5)

구원전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베어드는 교육사업에 뛰어들었다. 『기독교청년회실생활』서문에서 베어드는 자신의 지난 사역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밝히고 있다. 그는 조선이라는 선교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의 좋은 소망 얻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 곳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구원 얻을 도리가 다시없음을 더욱 확연히 믿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청년교육사역에 열정을 갖고 매진해왔고, 많은 청년들이 열성과 하나님의 말씀 얻기를 통해 장차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당한 자가 되기를 항상 기도해왔다고 소회하고 있다.(Elliott, 역자서문 1-2)

베어드는 이러한 이유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교육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이 진리를 가장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선교현장에서 해왔던 교육선교의 방법은 자신과 진도 중심이었다. 앞선 서양문물의 하나인 교육을 진도의 도구로 삼고 있었다. 즉 학교에 비기독교인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전도하거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독교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 진도에 도움을 얻고자 함이었다. 베어드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새로운 교육선교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기독교인을 학생을 받아,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여,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여, 그들이 기독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다. 기독교학교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교회와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교회와 세상의 현장에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베어드의 주장한 교육방법이었다.(Baird: 1897, 1-2)<sup>324)</sup>

이러한 그의 교육정책이 기독교 공동체만을 위한 교육이기에 “좁다(Underwood, 1926: 127).”라고 비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베어드는 세상의 대학과 교육시스템은 약한 것이고, 그가 추진하는 것은 새롭고 선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Baird, 1914-1915: 3-4) 대학문제의 논쟁이 한창일 때에 그는 비기독교인을 위한 교육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며, 비기독교인을 가르치는 기독교 대학과 기독교인을 가르치는 기독교 대학은 다르다고 말한다. 비기독교인을 가르치는 기독교 대학은 결국은 대학의 성격이 변질되고, 기독교의 영향력마저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Baird, 1914: 297)<sup>325)</sup> 베어드에게 있어 이 새로운 교육방향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선교의 방법에 대해 아들인 리처드 베어드(Richard H. Baird)는 혁명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Baird: 1968, 117)

둘째, 학교위치를 정치권력의 중심인 서울이 아닌, 평양으로 정한 것은 세상과 짝하지 않는 초월성과도 이어진다. 당시 그때까지 해오던 선교방법은 교육기관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들이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면 교육기관이 토착교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교육기관은 지역 토착민 중에서 비기독교적이고 부유한 자들과 짝을 하게 되었고, 교회와 기독교 또한 기대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Baird, 1968: 118) 이때 그의 눈에 띈 곳은 북쪽지방이었고 평양이었다. 베어드가 형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북쪽사람들에게는 남쪽과 달리 방해물이 없고, 독립적이고 사려 깊고 원기 왕성한 기질을 갖고 있어 베어드가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324) The main purpose of a mission school should be to develop the native church and its leaders for aggressive christian work among their own people. ... Whether they become farmers, blacksmiths, doctors, teachers, or Cabinet officers, all become active preachers of the gospel.

325) The education of non-Christians is not our commission. ... A college primarily intended to educate non-Christian students under Christian influences is not the same thing as a college intended to educate Christians.

할 수 있다.(Baird, 1897a: 3) 그리고 교육정책을 입안 할 때 기독교 학교는 정치적인 것을 비롯한 모든 방해의 요소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aird, 1897b: 6) 아마도 평양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성진도 평양과 서울에 대해 “평양은 정치권력에 소극적, 대항적이며 서울은 현실적, 타협적이었다(이성진, 2007: 147).”고 평가하고 있다.

셋째, 진리론의 개혁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개혁과 사회개혁의 삶을 도모하게 하였고, 졸업 후에는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하게 하였다. 베어드가 가르치고 학생들이 믿는 진리는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사회와 공동체, 나아가 나라를 위한 유익과 봉사의 꿈을 꾸게 하는 것이었다. 교육과정에 민족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혁의 성격을 띤 진리론을 믿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양성하기에 충분하였다. 삶으로 보여주는 개혁의 진리신앙이 가장 큰 교육내용인 것이다.

베어드는 이러한 마음으로 조선을 위해 지도자 양성에 관심을 가졌고,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들을 진리론에 기초하여 열정으로 가르쳤을 때, 그들이 농부가 되던, 대장장이가 되던, 혹은 의사, 교사, 공무원이, 혹은 무엇이 되던 그들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Baird, 1897b: 2) 이렇게 볼 때 베어드의 진리론은 그의 교육선교사상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 IV. 결론

지금까지 ‘베어드의 진리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글의 가장 큰 의의는 첫째 베어드의 사상, 즉 교육선교의 기초가 되는 그의 신앙과 사상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베어드의 저작물을 근거로 하여 그의 사상을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그의 저작물을 살펴본 결과 그는 기독교의 진리를 조선 땅에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믿고 숭상하고 전하고자 했던 기독교의 진리를 ‘베어드의 진리론’이라고 명명하고, 그의 저작물을 읽고 분석하여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 진리가 갖고 있는 성격을 논의하고, 교육선교와 어떻게 이어지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베어드의 진리론’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데, 구원 진리, 소망 진리, 변화 진리이다. 첫째 구원 진리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베어드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죽음의 심판이 찾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창설자가 대신 죽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예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한다. 구원은 오직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믿음이란 자기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둘째 소망 진리란 부활과 재림신앙이 소망을 가져다준다는 내용이다. 베어드에 의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신자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 부활의 증거는 오늘의 주일이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소망의 종교가 되는 것이다. 재림신앙 또한 마찬가지로 베어드의 재림신앙은 현실을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도록 한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 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을 얻고, 더 사랑을 하고, 더 봉사를 하고, 더 전도를 하게 된다.

셋째 변화 진리란 신자가 성결한 삶으로 변화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기독교는 언제 어디에서나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참된 신자라고 가르친다. 변화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죄를 멀리하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고 가르친다. 변화된 삶의 요구는 자기의 사욕을 이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

이러한 베어드의 세 가지 진리론은 각각 세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비타협성, 초월성, 개혁성이다. 첫째 비타협성이란 연합이나 소통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칙을 굳게 지킨다는 뜻이다.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기독교는 변하지 않는 종교이며, 변하면 안 되는 종교라고 가르친다. 비타협의 성격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혁명과 같은 결단을 요구한다. 우상숭배와 같은 유교의 관행을 버릴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둘째 초월성이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시 부활과 재림신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였다. 궁극적인 소망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와 예수의 재림에 두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개혁성이란 자기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삶을 살도록 했다는 뜻이다. 철저히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결단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자기 개혁과 도덕의 삶을 살게 했다.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 공동체에서도 개혁의 삶을 살고 본을 보이며, 사회개혁을 주도해나가도록 했다.

진리론의 비타협, 초월, 개혁의 특성은 베어드의 교육선교 사업에도 영향을 끼쳤다. 진리론의 이러한 특성은 기독교 진리 진과의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 베어드에 의하면 기독교의 진리만이 조선에 구원과 개혁이라는 큰 유익을 줄 수 있고, 그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 된다. 이 진리를 가장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교육정책이란, 기독교인 학생을 받아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고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여, 그들이 기독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기존의 교육선교의 방법을 뒤집는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또한 학교 위치를 정치권력의 중심인 서울이 아닌, 평양으로 정한 것은 세상과 짝하지 않는 초월성과도 이어진다. 그리고 진리론의 개혁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개혁과 사회개혁의 삶을 도모하게 하였고, 졸업 후에는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하게 하였다.

베어드의 교육선교사상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진리론’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다음 연구과제는 그의 교육의 목적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가 어떻게 민족 지도자와 이어지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베어드의 저작물

배위량 (1916). “단편괴담 - 마귀의 슈갯.” 『괴독신보』, 10월 25일자. 5.  
 \_\_\_\_\_ (1917a). “단편괴담 - 황제의 황옥을 차집.” 『괴독신보』, 2월 7일자. 4.  
 \_\_\_\_\_ (1917b). “단편괴담 - 조국의 친척을 찾는법.” 『괴독신보』, 5월 9일자. 5.  
 \_\_\_\_\_ (1917c). “단편괴담 - 누구든지 독성자 예수를 맞으면 구원을 얻음.” 『괴독신보』, 6월 27일 자. 5.  
 \_\_\_\_\_ (1917d). “단편괴담 - 밋는사람은 수욕을 이김.” 『괴독신보』, 7월 4일자. 4.  
 \_\_\_\_\_ (1924). “밋음.” 『신학지남』, 6(2), 40-54.  
 \_\_\_\_\_ (1926a). “로마인서 대지.” 『신학지남』, 8(1), 42-56.  
 \_\_\_\_\_ (1926b). “문테와 성경답안.” 『신학지남』, 8(3), 1926년 7월, 47-53.  
 \_\_\_\_\_ (1926c). “그리스도교의 특색.” 『신학지남』, 8(4), 133-149.  
 Baird, William, M. (1892-1895) *Diary of William M. Baird 1892.5.18-1895.4.27*. 이상규 역 (2113).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 일기』. 서울: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_\_\_\_\_ (1897a) *Letter to Brother, May 9th 1897*, [베어드자료 마이크로필름, 고신대학교 이상규교수 소장]

\_\_\_\_\_ (1897b) *Our Educational Policy*, [베어드자료 마이크로필름, 고신대학교 이상규교수 소장]

\_\_\_\_\_ (1914) "Educational Mission Problem," *Korea Mission Field* 10(10), 296-299.

\_\_\_\_\_ (1914-1915) *Personal Repot(1914-1915)*, [베어드자료 마이크로필름, 고신대학교 이상규교수 소장]

金森通倫(Kanamori, Paul M. ), 『信仰のすゝめ』(*The Christian Belief*). 배위량 역 (1922). 『그리스도교의 신앙』.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山實軍平(Yamamuro Gumpei) 『平民の福音』(*The common people's Gospel*). \_\_\_\_\_ 역 (1925). 『평민의 복음』. 京城: 救世軍營.

Anonymous, *Fundamental truths concerning the work of Christ*. \_\_\_\_\_ 역 (1917). 『그리스도의 스업(基督之事業)』.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Brooks, James H. *Till He Come*. \_\_\_\_\_ 역 (1922). 『죽지림론』.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Bunyan, John,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s*. \_\_\_\_\_ 역 (1921). 『변연오한 신행록』.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Elliott, Delber H. *Hand-book for young Christians*. \_\_\_\_\_ 역 (1931). 『기독교청년의 실생활(基督靑年 實生活)』.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Judson, A. *Guide to Heaven*. \_\_\_\_\_ 역 (1908). 『턴로지귀(天路指歸)』. 경성: 대한예수교서회.

## 2. 기타 단행본 및 학술지

김영제 (1989). 『교회와 신앙고백』. 서울: 성광문화사.

박용규 (2000). "한국교회 종말신앙 -역사적 개관-" 『성경과 신학』. 27. 190-222.

박정신 (1993). "구한말 일제초기의 기독교신학과 정치 - 진보적 사회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17(1). 103-125.

배도환 (2009). "윌리엄 베어드의 죽음 이해." 『부경교회사연구』, 23. 50-65.

\_\_\_\_\_ (2010). "대학문제를 통해 나타난 배위량의 교육선교사상 및 역사적 의의." 『신앙과 학문』. 15(2). 75-94.

탁지일 (2013). "윌리엄 베어드와 대학문제."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베어드의 선교와 사상』.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李省展, 『アメリカ人宣教師と朝鮮の近代 : ミッションスクールの生成と植民地下の葛藤』, 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神山美祭子) 역 (2007). 『미국 선교사와 한국 근대 교육』.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 연구소.

Baird, Richard. H. (1968) *William M. Baird of Korea : A profile*. Oakland.

Park, Chung-Shin (2003)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Underwood, Horace H. (1926)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 다원주의사회에서 종교교육의 방향

정문선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교육의 의미를 검토하고, 그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교육의 목적은 시공을 막론하고 언제나 인간으로 하여금 '좋은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있다. '좋은 삶'의 정의는 시대마다 그리고 학자마다 다양하다. 한편 교육에 있어서 '좋은 삶'은 '전인(全人)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대체적으로 전인은 인간의 지(知)·정(情)·의(意)가 고르게 조화롭게 발달한 원만한 인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육의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진(眞)·선(善)·미(美)·성(聖)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종교적 차원은 성(聖)과 관련된 것으로 한편으로는 예술적 차원(美)보다 온전한 의미의 삶 전체에 대한 통합된 태도를 가지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 차원(善)보다 온전한 의미의 이상적 목적 추구에 헌신하게 한다(박철홍, 2004: 9; 유재봉, 2011). 이와 같이 교육의 목적이 '좋은 삶', '전인의 형성'이라고 할 때, 교육에 있어서 종교적 차원을 논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sup>326)</sup>.

서구에서는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진선미의 개념에 대한 전복이 일어나고, 특히 쉘(종교)과 관련해서는 진리의 비절대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기독교의 교조에서 벗어나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영향으로 '종교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종교에 대한 재개념화, 세계종교, 종교통합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종교학의 창시자 M. 뮐러(Max Müller)는 종교학(religions wissenschaft, science of religion)을 "세계의 종교를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했다. 종교학은 '종교의 제 현상(신조, 의례, 경전, 윤리, 신화, 경험, 문화, 공동체 등)에 대한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시도하는 학문'으로 이해된다(김구산, 1995: 27-29).

한편 M.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종교학은 성스러운 것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며, 종교학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종교경험과 종교표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엘리아데의 종교학적 입장은 종교적인 것과 종교적이지 아닌 것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일, 종교를 전체로 조망하는 일, 그리고 종교를 종교자체로 이해하려는 학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M. Eliade, 1969: 6-7; 김용표, 2010: 18). 즉 종교학은 특정종교의 진리가 아닌 보편적인 종교현상의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학은 '인간의 본질 속에 내재하는 종교성과 역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온 종교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과 종교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해명하려는 인간학'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은 대체로 '신앙'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종교를 하나의 '학문'으로 가르치는 것을 전제한다.

종교교육은 모든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과 종교적인 가르침(religious teaching), 그리고 종교 가르치기(teaching religion)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박상진, 2010: 15-16). 대체로 다

326) 본 논문의 목적은 교육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필요성 내지 정당화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므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이것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유재봉(2011)을 참조할 것.